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3월 6일  
제1886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 4,1-2)



〈광야의 그리스도〉, 이반 크람스코이

## 사순 제1주일 (다해)

제 1 독서 신명 26,4-10 |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

화답송 시편 91(90)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 2 독서 로마 10,8-13 |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루카 4,1-13 |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그때에<sup>1</sup>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sup>2</sup>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sup>3</sup>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4</sup>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sup>5</sup>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sup>6</sup>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sup>7</sup>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sup>8</sup>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sup>9</sup>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sup>10</sup>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sup>11</sup>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sup>12</sup>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sup>13</sup>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 복음 묵상

루카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전하기에 앞서 준비 기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악마는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유혹, 세상 통치의 힘을 질 수 있는 유혹,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호받으며 신성을 알릴 수 있는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여받으신 신적 능력으로 악마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들’로서 지니신 신적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길’(배고픔, 고통, 죽음, 약함 등)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운명을 피하는 것은 예수님께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악마에게서 유혹을 받으시지만 극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악마의 유혹을 이겨 내실 수 있었던 힘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를 떠돌던 시기에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악마의 유혹을 이겨 내시어 당신 스스로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는 분(신명 8,3; 루카 4,4 참조), 하느님을 경배하시고 섬기시는 분(신명 6,13; 루카 4,8 참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시고 그분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신명 6,16; 루카 4,12 참조)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물리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진만 안젤로 신부>

성화 해설

# 광야의 그리스도

이반 크람스코이(Ivan Nikolaevich Kramskoy, 1837-1887)가 1872년에 그린 ‘광야의 그리스도’는 마태오복음 4,1-11; 마르코복음 1,12-13; 루카복음 4,1-13절이 그 배경이지만, 전통적인 화가들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을 형상화하는 표현에서 벗어나 자신의 철학과 도덕적 기준을 담아 이 작품에 접근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두고 ‘내가 본 그리스도 중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다. 다른 화가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크람스코이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다.



〈예수 그리스도〉, 이반 크람스코이

이른 새벽 동이 트는 시간에 바위투성이 광야에 예수님 홀로 바위에 앉아계신다. 살아 있는 생명은 잡초 하나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돌무더기 황무지이다. 예수님께 확대경을 대고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가슴이 멍멍하고 숨이 멎어버린다. 그냥 작은 화면의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확대 기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과 눈과 손과 발을 보는 순간, 심연을 알 수 없는 고뇌하는 예수님의 깊은 눈동자에 어린 우수에 가슴이 저미고, 꼭 쥐고 있는 두 손과 뼈만 앙상하고 거친 맨발에 목이 메게 된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자기 소명에 대한 깊은 고뇌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이다. 돌만 가득한 광야는 맨발로 걷기에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맨발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힘줄이 드러나도록 굳게 깎지를 낀 두 손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친 기도의 마무리를 아직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그분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온 하느님의 아들로써 앞으로 자기가 걸어야 할 미지의 길에

대한 깊은 의문과 불안에 찬 모습이다. 먹을 것도 없고 밤의 찬 기운을 피할 곳도 없는 사십 일 동안의 광야생활은 그분의 얼굴을 핏줄까지 만들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점점 고뇌로 깊어졌다. 지금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작품은 밑바닥에서부터 저며 오는 깊은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의

잔인한 슬픔이 진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 광야에서 깊이 내면으로 침잠해 있다. 그분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sonyh252/221850454467>〉

## 묵상

하느님은 순수한 자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느님은 고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죄로 인한 온갖 상처를 당신의 자비로써 치유하십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지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순수한 자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소국 주최

##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알링턴 교구 성소국 주최로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생활과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게 하는 4박 5일 여름캠프에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Quo Vadis SUMMER CAMP

July 10-14, 2022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FIAT SUMMER CAMP

July 17-21, 2022

장소

Mount St. Mary's University and Seminary, Maryland  
16300 Old Emmitsburg Rd, Emmitsburg, MD 21727

-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 신청 기간 : 3월 한달 동안
- 참가자 등록 마감 : May 9 (캠프 참가자로 당첨된 학생)
- 참가비 : \$250 (성소후원회 전액 장학금 지급)
- 문의 :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Sign up for the Quo Vadis and FIAT Camp Registration Lotteries

신청하기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1 2차 헌금 Black & Indian Mission**

- 이번 주일은 Black and Indian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

-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가 있습니다. 주님수난 여정에 함께 하며 기도와 자선, 학생의 살이기를 기도합니다.

**3 정 아가다 수녀님 환송 미사**

- 정 아가다 수녀님께서 본원으로 이동하시고 한 다니엘 수녀님께서 봉당으로 오십니다. 수녀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정 아가다 수녀님 환송 미사: 3월 6일(일) 오전 10시
- 한 다니엘 수녀님 환영 미사: 3월 13일(일) 오전 10시

**4 구역봉사자 회의**

- 일시: 3월 6일(일) 오전 11:40 (B-3,4)
-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유아세례**

- 일시: 3월 12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단체장 회의**

- 일시: 3월 13일(일) 오전 11:40 (A-1,2)

**7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3월 13일(일) 오후 1시 (B-3,4)

**8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알링턴 교구의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9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시기 동안 알링턴 교구의 모든 성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8시까지 성체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본당 부활 판공성사: 3월 22일(화) 오후 3시 - 5시, 저녁 7시(미사) - 9시

**The Light is ON for You**  
<https://thelightison.org/>

**10 CYO WorkCamp Contractor 모집**

- 기간: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인원: 3명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11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청년 성서모임 2022 봄학기 개강 미사**

- 가톨릭 성서모임 청년 그룹원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 일시: 3월 13일(일) 오후 5시
- 문의: 강동철 로베르토 (531) 432-9950

**13 하상 성인학교 2022년 봄학기 수강 안내**

- 봄학기 일정: 3월 15일(화) - 6월 17일(금)
- 등록 접수: 3월 6일(일), 13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60(점심 없음)
- 문의: 김명희 울리안나 교장 (703) 217-2775
- 안내서 및 신청서는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Daylight Saving Time 시작**

다음 주일(3월 13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주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웹주보에서 확인하세요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수난 예식 오후 8시
-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2월 27일(연중 제8주일)**

주일헌금	\$ 5,801.00
교무금	\$ 7,196.00
교무금(신용카드)	\$ 4,023.00
감사 헌금	\$ 610.00
온라인 봉헌	\$ 3,160.00
<b>합계</b>	<b>\$ 20,790.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3월 10일(목) 오후 5:00-6:00  
 3월 11일(금) 저녁 8:00-9:00  
 3월 13일(일) 오전 6:00-7:00
- 신부님 주일 강론
  - 특강: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1) - 성당 건축이란 무엇인가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덴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